

한화케미칼, 울산공장 근로자 추락사

공사용 엘리베이터 지상 8m에서 추락 ... 작업환경 안전성 문제 도마위로

한화케미칼(대표 김승연·홍기준)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.

10월17일 오후 1시30분경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공사용 엘리베이터(수직 상승기)가 지상 8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근로자 신모씨가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.

동료 근로자들은 “신씨는 당시 15m 높이의 공장 건물에서 전기 내선공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오던 중이었다”며 “갑자기 신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”고 말했다.

경찰은 엘리베이터를 매달고 있던 철선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서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10/18>